

황금연휴 해외 여행 붐물

(내달 1~5일)

광주 여행사 여행상품 90% 이상 팔려 전남도내 관광지 숙박업소 예약 몰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낀 5월 첫째 주 황금연휴를 앞두고 항공사와 국내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에 예약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목요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 월요일 사이에 주말과 휴일이 끼면서 직장인들은 최대 닷새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 전체 220개 초·중학교가 5월6일부터 9일까지 단기방학(효도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황금연휴 이후의 예약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나투어 광주지점은 연휴 초반 동남아, 중국, 일본 등으로 떠나는 여행상품의 90%가 예약됐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출발일자는 연휴가 시

작되는 1일부터 3일까지로 날짜별로 500여명 이상이 예약을 마쳤다. 이 같은 예약률은 평소 휴일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가족과 함께 하는 3박5일 일정의 동남아 여행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모두투어 광주지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연휴 초반 해외로 떠나는 상품에만 1천250명의 예약자가 몰렸고, 주요 단거리 해외여행에 대한 예약문의전화도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고 있다. 여기에 연휴 다음주까지 추가로 휴가를 내고 호주나 유럽으로 떠나는 사람도 많아 장거리 여행코스 예약률도 50~60%에 이르고 있다.

가족과 함께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늘면서 국내 주요 관광

지 숙박업소들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08 한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공식 지정 숙박업소인 목포 현대호텔은 연휴기간 전체 175개의 객실 가운데 70% 이상 예약을 끝낸 상태다. 신안 중도면 엘도라도리조트는 5월2일~4일까지 180객실의 예약이 완료됐으며, 1일에만 10%가량 객실이 남아있다.

담양리조트도 같은 기간 모든 예약이 완료됐으며, 예약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만 30여명에 이른다.

하나투어 광주지점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은 전통적으로 여행객이 많은 성수기지만, 올해는 황금연휴까지 맞물리면서 훨씬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며 “하루에도 예약문의전화 수 십 통이 걸려오지만 동남아 등 단기 여행코스는 대부분 예약이 끝났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시 자원봉사자들이 U대회 실시단계에 깨끗하고 화사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22일 빛고을로 동림 나들목에서 꽃잔디를 심고 있다. 6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지난달부터 광주 주요 관문로 1만5천여㎡에 75만포기의 꽃잔디를 심어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U대회 실사단 환영 시민들이 나선다

준비위원회 구성...환영일정·행사 주도적 추진

2013 하계U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시민 주도의 대대적인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준비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FISU 실사를 앞두고 각계 각층에서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시민환영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환영일정을 짜고 환영행사도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다음달 1일~5일 실사단 방문에 환영행사를 총괄할 기구로 ‘FISU 실사단 환영 시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학계, 경제계, 체육계, 여성계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FISU 실사단 환영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들은 또 광주시의 FISU 실사단 환영행사와 연계해 단체별 관

람 공무원과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노력하면 반드시 U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U대회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세계 대학생들에게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관광객들이 광주로 몰려오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맞맞춰 탄소거래소를 유치하려는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광주시가 탄소거래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08 광주비엔날레 휘장 사업자 모집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오는 28일부터 5월9일까지 2008광주비엔날레 휘장사업자를 모집한다.

휘장사업은 2008광주비엔날레의 심벌·마크·로고 등 유·무형의 상업적 권리를 기업에게 부여, 상품판매·광고 등에 활용토록 하고 비엔날레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공식 후원자와 공식 공급자, 공식 상품화권자다. 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5월9일까지 재단 내 홍보사업부에서 하며, 신청서는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www.gb.or.kr) 공지사항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19일 개별통지되며, 계약일부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휘장사업자로 선정되면 공식명칭 사용권을 비롯해 공식마크·로고·마크·스크린 등의 휘장사용권, 행사장 내의 판촉활동권, 행사물품 우선공급권 등 권리를 부여받는다. 재단에서는 홈페이지와 기념저작물 및 각종 홍보용 인쇄물 등을 통해 기업의 홍보를 지원한다. 문의 062-608-4223.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심서 즐기는 봄꽃 향연

“화려한 봄꽃 향연, 도심에서 즐기세요”

광주시 북구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1일간 구청 광장 일대에서 ‘제19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봄꽃잔치’를 연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릴 이번 봄꽃 잔치는 효(孝)를 상징하는 ‘카네이션’(5종)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피튜니아·팬지·할미꽃 등

평일에는 오전 10시30분~11시 40분·오후 3시30분,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인형극이 열린다.

주요 행사로는 ▲29일 개막식 및 인형극 ‘괴물이 괴물소탕작전’ ▲30일 인형극 ‘호랑이를 잡은 바보’와 ‘어린이 그림 그리기’ ▲인형극 ‘도둑이 뺑뺑이’와 ‘어린이 재롱잔치’ ▲5월3일 음악회(동요·클래식·재즈 등) ▲4일 인형극 ‘빨간 도깨비, 파란 도깨비’ ▲8일 폐막식 등이 펼쳐진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2013 하계 U대회 광주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100만 꽃송이에 담겨 있는 만큼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며 “가족 모두가 꽃 향기 가득한 구청 광장에서 풍요로운 봄의 정취를 만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구청 광장에서 공공근로자 등이 재배한 꽃으로 ‘봄·가을 꽃 잔치’를 열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

북구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봄꽃잔치

100만 꽃송이가 전시된다.

또 수석 60점과 목공예품 60점, 토피어리(topiary·자연 그대로의 식물을 여러 가지 동물 모양으로 만든 작품) 30점, 제빵공예품 10점, 종이접기 200점 등도 구청 광장을 가득 메우게 된다. 유명극단의 어린이 인형극과 어린이 재롱잔치, 음악회, 북구 기업사랑 디자인·브랜드전,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했다.

남구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

자문위 구성 ‘남구의 날’ 프로그램 등 시행

광주시 남구가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 지원에 나섰다.

남구청은 최근 대학교수와 다문화가정 지원단체, 외국인 출입국업무 관계자 등 10명으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부부 사랑만들기’ ‘다문화 가정 만남의 날 행사’ 등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2년의 임기 동안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에 관한 지원과 시책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들이 겪는

지역사회와 문화·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난 19일에는 남구보건소 회의실에서 ‘우리 부부 사랑 만들기’ 행사를 개최, ‘부부 포크댄스 체험’ ‘가족 액사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오는 26일에는 남구청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만남의 날’ 행사를 열어 웃음강좌, 마술쇼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에 관한 지원과 시책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들이 겪는

광주지역 특수학교 교사 10명중 8명

“광주에 특수학교 더 필요”

광주시내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10명 중 8명은 광주에 특수학교가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지난 15~18일까지 광주지역 특수학교(선광·선명·은혜·세광학교) 근무교사 134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응답 인원의 83.6%인 112명이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교사는 13명(9.7%)에 불과했다.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한 이유로 전체의 41.8%인 56명이 ‘특수

학교가 과밀·거대화돼 포화상태이며 이로 인해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교육환경 및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21.7%인 29명은 ‘장애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특정 장애영역에 대한 교육의 전문화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신설 특수학교의 장애영역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36.6%인 49명이 ‘정신지체’를 꼽았으며, 그 뒤를 ‘다장애’(32명·23.8%), ‘중증·중복 또는 정서행동장애’(20명·14.9%) 등이 이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p>이종행 전남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23일</p>	<p>이종행 전남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23일</p>
<p>이종행 전남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23일</p>	<p>이종행 전남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23일</p>
<p>이종행 전남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23일</p>	<p>이종행 전남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23일</p>
<p>이종행 전남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23일</p>	<p>이종행 전남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23일</p>
<p>이종행 전남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23일</p>	<p>이종행 전남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23일</p>

뉴서울나이트

대인종

4월 24일 OPEN

실운도 4월 24일 25일

익상철 5월 1일 9일

예약문의 226-9333-1